

  제주특별자치도 Jeju Special Self-Governing Province		2021. 3. 23.(화) 배포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	
해양수산국	보도자료 PRESS RELEASE	해녀문화유산과장	우윤필 ☎ 710-3980
		해녀박물관팀장	부용식 ☎ 710-7770
동영상(웹하드) : 있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	사진 : 있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	
		후속자료 : 없음	

제주4·3 상징 동백꽃, 해녀박물관에 피어오른다

- 4·3 73주년 맞아 3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동백꽃 관련 전시·체험프로그램 운영 -

-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은 제주4·3 73주년을 맞아 23일부터 4·3 영령을 추모하기 위한 전시 및 체험프로그램을 오는 4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.
- 이번 전시는 제주4·3의 상징 꽃인 동백꽃 사진작품과 박노해 시인의 ‘동백꽃은 세 번 피지요’를 전시한다.
 - 또한 해녀박물관을 방문한 관람객들이 동백꽃에 글을 적어 전시공간에 매달아보는 <동백꽃 매달기> 체험프로그램도 진행된다.
- 동백꽃은 4·3 영혼들이 붉은 동백꽃처럼 차가운 땅으로 소리 없이 스러져갔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4·3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꽃이다.
 - 동백꽃 사진작품은 (사)한국사진작가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(지회장 이창훈)와 제주사진연구 모임인 「제주in 포커스」의 후원으로 전시되며, <동백꽃 매달기> 체험에 참여한 관람객들에게는 제주4·3평화재단의 협조로 동백꽃 배지를 나눠줄 예정이다.
 -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박물관 관람은 사전예약을 통해 시간당 50명만 관람할 수 있으며, <동백꽃 매달기> 체험은 매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운영된다.

- 우윤필 도 해녀문화유산과장은 “이번 전시는 해녀박물관을 방문하는 관람객들이 제주도민의 아픔이 있는 제주4·3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계기를 마련코자 기획됐다” 며 “앞으로도 해녀뿐만 아니라 제주인, 제주여성을 품을 수 있는 다양한 전시를 기획·운영해 나가겠다” 고 말했다.

<관 련 사 진>

제주4·3
73주년
동백
展

동백꽃은
4·3 영혼들이 붉은 동백꽃처럼 차가운 땅으로 소리없이
스러져갔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4·3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꽃입니다.

2021. 3. 23 Tue - 4. 30 Fri
해녀박물관 로비

Jeju 제주특별자치도 Jeju Special Self-Governing Province
해녀박물관 HAENYEO MUSEUM

“제주4·3 73주년 동백展” 포스터



“제주4·3 73주년 동백展” 전시모습